

농어촌공사, '2023 농어민단체 실무진 간담회' 개최

-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현안 공유·논의 -



[사진설명]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농업인 단체 실무자를 초청해 공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농어촌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4일 오송호텔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실무자를 초청해 '2023년 농어민단체 실무진 간담회'를 개최하였다.

이번 행사는 공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농어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, 공사가 진행해 온 농어민단체장 간담회에 이어 단체의 사무총장 등 실무자를 초청해 농정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집중하겠다는 공사의 의지가 반영되었다.

간담회에서는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, 농민의길, 환경농업단체연합회, 한국화훼단체연합회 등 30여 곳의 소속 실무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, △이상기후 대비 농업용수관리 △농지은행 관리원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소개 △농촌공간계획법과 농촌공간정비사업

사례 등이 중점이 되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.

특히, 참석자들은 “공사는 농어촌 현장에서 농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소통하는 기관만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”을 강조했다.

이병호 사장은 “말씀해 주신 다양한 고견에 감사드리며,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급변하는 농정환경에 대응하여 농어촌·농어업 발전을 위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.”며 “앞으로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”는 뜻을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관리실	책임자	부 장	김용구 (061-338-5121)
	기획총괄부	담당자	대 리	안태현 (061-338-5126)